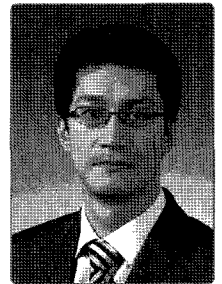


애플의 특허

정부연

혁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문쟁건설링분과 소속
서울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위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삼성전자 연구원



최근 IT 시장의 중심 화제는 애플의 『iphone』, 『ipad』, 『ipod』로 대표되는 스마트 기기라 볼 수 있으며, 이들 기기 모두는 애플의 전적인 힘에 의하여 시장이 개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은 IT 시장의 혁신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비즈니스위크 최고 기업으로도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의 전망에 의하면 애플은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지닌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¹⁾. CNBC 방송은 애플리스트들이 애플의 최근 분기 실적을 검토한 결과 향후 1년간 이 기업의 예상 주가를 32%나 올려 주당 평균 467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예상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 애플의 시가총액은 4천 337억 달러가 돼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엑손 모빌의 4천232억 달러를 뛰어넘게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로서, 애플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다른 이면은 애플이 현재 처한 특허소송이다. 애플의 급격한 매출 증대에 따라, 경쟁제조기업 또는 비생산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은 특허를 통한 견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러월드²⁾는 애플의 커버플로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

1)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2090010>

2) 미러월드는 데이비드 켈러터 예일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설립한 회사로,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맥 컴퓨터가 스크린에 문서를 나타내는 기술을 구현할 때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드웨어 내 문서 검색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 백업 시스템 타임머신, 책장을 넘기듯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는 커버 플로 등 맥 운영체제(OS)의 주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는 것을 이유로 특허소송을 진행하였고 미국법원은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면서 총 6억 2,550만 달러(약 7,074억 4,050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애플은 “미러월드가 문제를 제기한 세 개의 특허 중 두 개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서 배심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판결을 긴급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³⁾.

이러한 소송을 포함하여, 애플은 최근 2년 동안 무려 20개가 넘는 특허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특허소송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제조기업, 부품(소프트웨어)기업, 비생산기업과 같이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 애플사가 진행 중인 특허소송

특허소송분류	분쟁업체
제조기업과의 소송	노키아, HTC, 모토로라, ...
부품(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소송	엘란, 코닥, 시냅틱스, 실리콘그래픽스, 미러월드, VirnetX, MONKEYmedia, ...
비생산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과의 소송	NTP, SmartPhone Technology, ...

애플의 특허소송대응

애플은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소송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허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제조기업, 부품(소프트웨어)기업 또는 비생산기업 중 어느 곳인가에 따라 그 대응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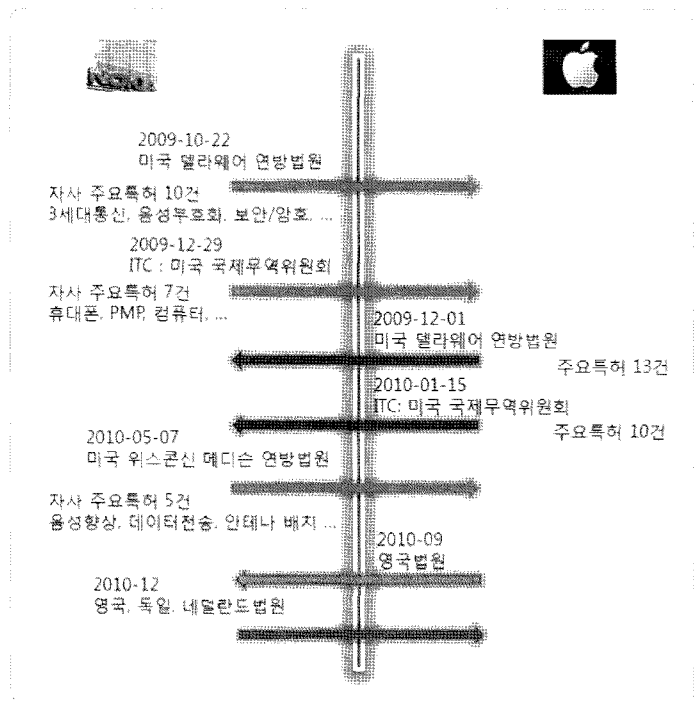
우선 애플은 제조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는 카운터클레임(즉, 맞소송)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모색하

고 있고, 부품(소프트웨어)기업 또는 비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협상 또는 무효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애플은 노키아와의 특허분쟁을 다음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에서 약 9개의 소송 및 맞소송으로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과로는, 애플사에게 다소 불리한 것으로 전망되나 맞소송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를 들어, 애플은 국내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는 특허소송이 아닌 협상을 통해 비공개 조건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림 1> 애플 v. 노키아 특허소송



애플의 특허전략

애플은 많은 특허소송을 경험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철저하게 특허로서 보호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등록특허는 약 3,800건 정도로 추정된다. 특허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 인터페이스 분야, 주변기기 분야, 광고 분야, 카메라 분야, 재료 분야, 보안 분야, 운영체제 분야,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 그린에너지 분야, 근거리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분야,

3)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0050156>
 4) 출처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71088

TV 분야 등 매우 다양하게 특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중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었거나 몇 가지 재미있는 애플의 특허 발명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빛 감지형 디스플레이 기술 - USP 7,880,733 및 USP 7,880,819

- 빛을 감지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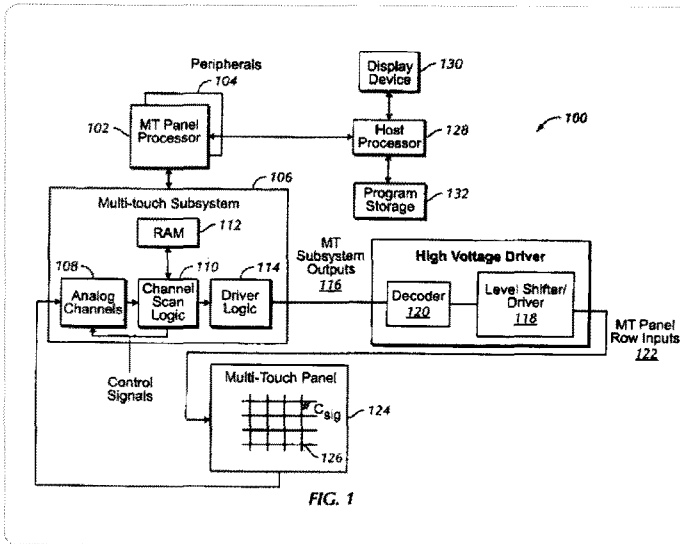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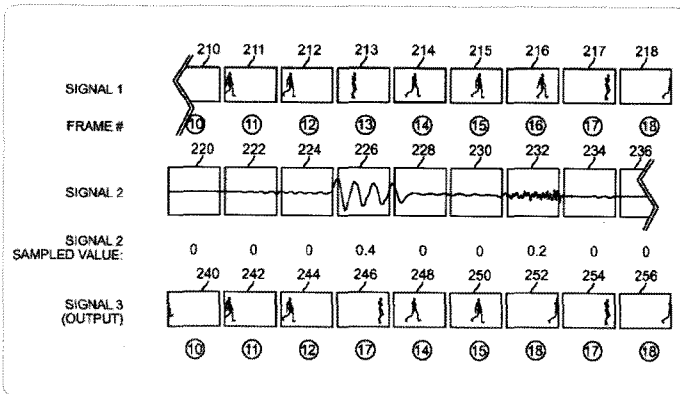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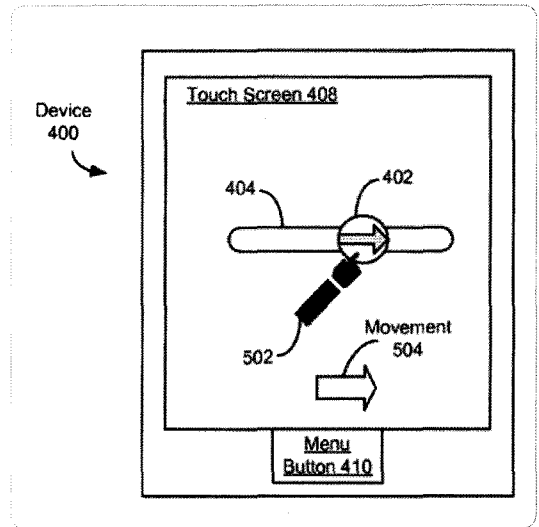
(2) 동적으로 생성되는 벨소리 기술 - USP 2011-0051914

- 발신자에 따라 각자 다른 동영상 벨소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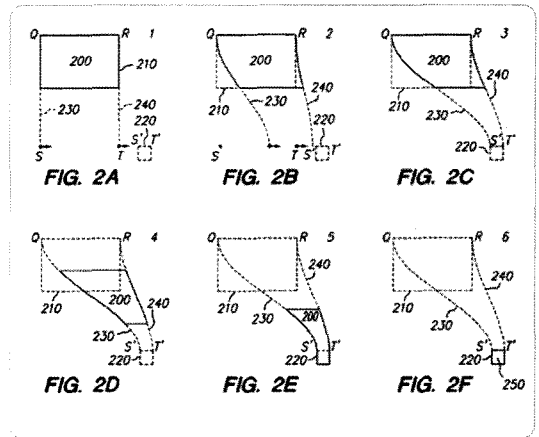
(3) 언락 이미지 상에 제스처를 수행함으로써 기기를 언락킹 하는 기술 - USP 7,657,849

- 터치스크린 오동작을 방지하고자, 사용 전에 락을 푸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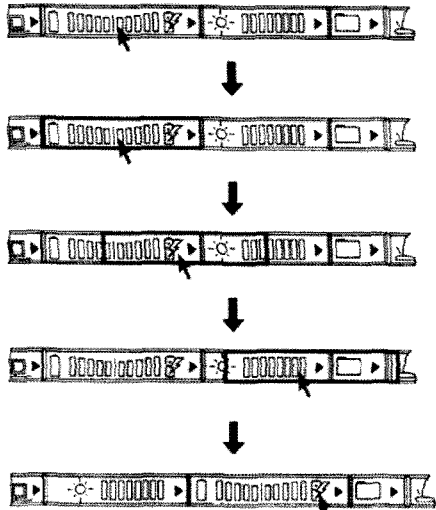
(4) 상태들 사이에서 UI 객체들의 시간 기반 및 비항속 변환 기술 - USP 7,362,331

- 윈도우의 최소 및 회복 상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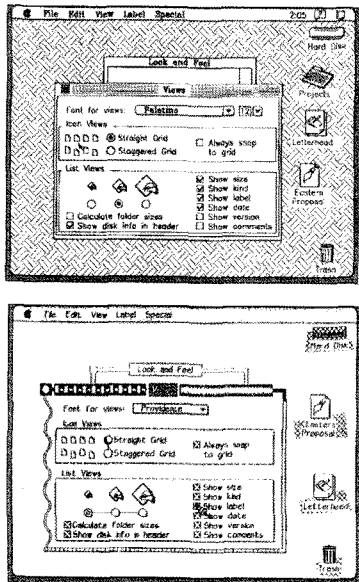


(5)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어 및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접근하는 장치 - USP 6,493,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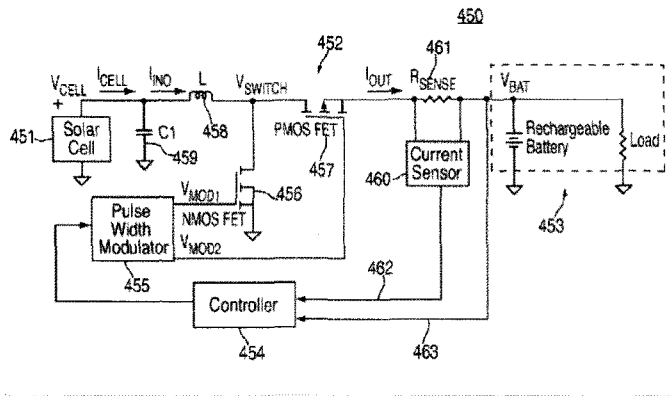
- 컴퓨터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작업표시줄의 조작



(6) GUI 상의 패턴과 컬러 추상화 기술 -
USP 6,239,795
- 윈도우의 테마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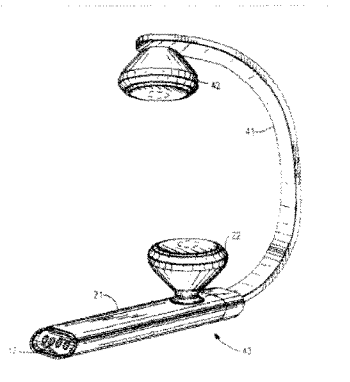


(7) 다수의 전력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휴대장치 - USP 7,868,582
- 전자판으로부터 얻은 태양광 에너지를 단말기에 맞게 변환 처리, 배터리 전원으로 공급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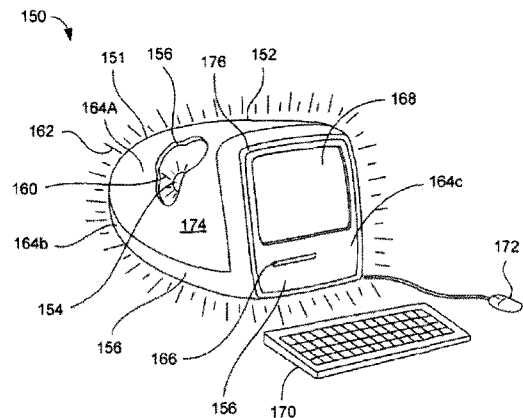
(8) 무선 헤드셋 MP3 플레이어 기술 - USP 2009-0268921

- MP3 미디어 플레이어와 보이스 메모, 휴대폰 통화 내용 저장 기능 탑재, 휴대폰으로 수신한 음성 메일 메시지를 헤드셋에 업로드해 오프라인으로 재생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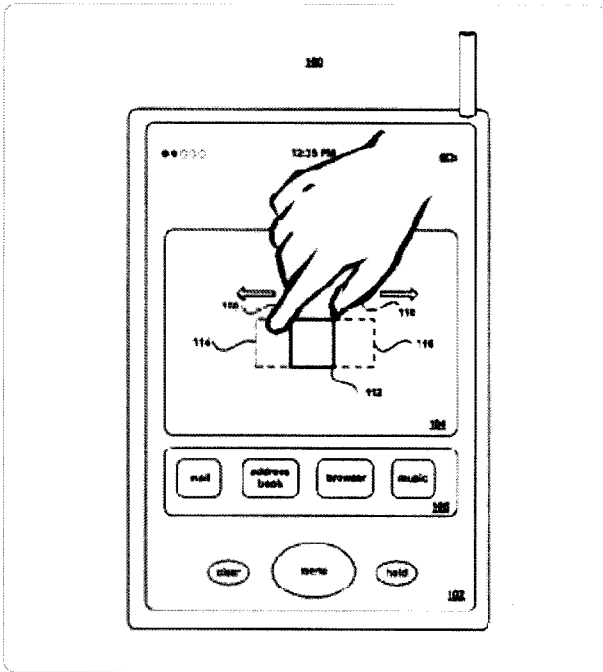


(9) 컴퓨팅 기기를 위한 액티브 인클로저 기술 - USP 7,766,517

- 컴퓨터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기술



- (10) 멀티터치 입력을 가지는 휴대형 전자 기기 기술
 - USP 7,812,826
 - 핀치투줌(Pinch-to-zoom)에 관련된 멀티터치 기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플은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들 특허 중 다수는 미래에 상당히 채택될 만한 좋은 기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특허로 애플이 생각하는 미래사업을 살펴보면, 애플은 기존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술(예를 들어, 카메라, 보안, 태양광 분야, 스마트의류 등)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

현재 애플은 미국의 등록특허 3,784건과 공개특허 2,124건(총 5,908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특허는 단순히 컴퓨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특허를 출원하여 미래의 IT 산업발전을 예측하고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애플의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면, 미래의 IT 산업은 기존 IT 산업의 확대는 물론 전통적으로 IT와 관계없는

분야(예를 들어, 자동차, 조선, 의류, 의료서비스, 건축, 전기설비, 유통, 금융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업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IT 융합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 뒤쳐질 수 있으므로 미래의 IT 산업 발전에 따른 준비를 차분히 할 필요가 있다. 2011. 4 |